2016년06월02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①	②	③	②	⑤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⑤	⑤	⑤	④	⑤	②	④	③	④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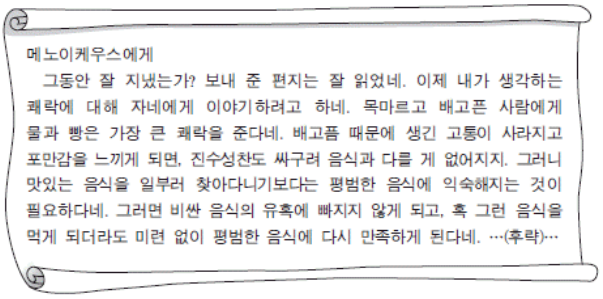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노이케우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가? 보내 준 편지는 잘 읽었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쾌락에 대해 자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물과 빵은 가장 큰 쾌락을 준다네. 배고픔 때문에 생긴 고통이 사라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진수성찬도 싸구려 음식과 다를 게 없어지지.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보다는 평범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네. 그러면 비싼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혹 그런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미련 없이 평범한 음식에 다시 만족하게 된다네. …(후략)…

① 공적인 삶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부를 축적하여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❸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④ 쾌락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현세의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좇아야 한다.

2.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①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❸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④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⑤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❶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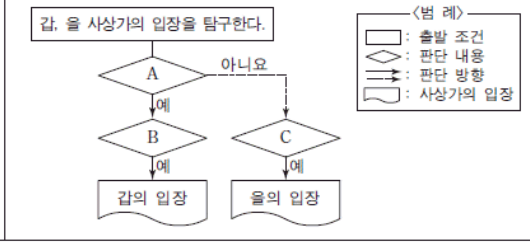
④ 선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 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참된 도(道)에는 이름이 없다. 도는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도를 부릴 수는 없다. 제후와 왕들이 이를 터득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바로 서지 않아서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나)


❶ A : 사람들이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② B : 도(道)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가?

③ B :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④ C :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⑤ C : 인의(仁義)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간은 가치관 형성 능력과 함께 정의감을 가진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삶의 주체이며,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존재이다.

(나) 인간은 모두 누군가의 형제이고 사촌이며, 이 마을과 저 부족의 구성원이다. 이런 것들은 각자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규정해 준다.

⊙ 학생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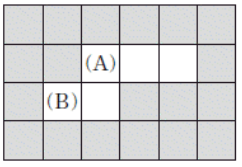
(가)와 (나)의 특징을 비교하면, (가)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며, (나)는 ㉡국가가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가)는 인간을 다른 사람과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 (나)는 상호 의존적인 연대적 존재로 본다. 또한 ㉣(가)는 정치 공동체를 개인의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 본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개인적 선과 공동선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① (ㄱ)
❷ (ㄴ)
③ (ㄷ)
④ (ㄹ)
⑤ (ㅁ)

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과 금수(禽獸)의 차이는 작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다. 순(舜) 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더 잘 아셨으니, 이는 마음속의 인의(仁義)를 따라 행하신 것이지 마음 밖의 인의를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나)



[가로 열쇠]
(A):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미의 동학 용어
(B):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예) 칸트의 '실천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의(義)로운 행동을 반복해 얻은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② 고통[苦]의 원인으로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혼재된 마음이다.
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량(善良)한 덕성이다.
④ 무욕(無欲), 무지(無知)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자연적 품성이다.
⑤ 희로애락(喜怒愛

7.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한다.
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이다.
ㄹ.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천지 사이의 이치[理]는 사물이 생길 때 성(性)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은 마음[心]이고, 성은 마음의 이치이다.
> 을: 성(性)은 하나일 뿐이다. 그 형체를 말할 때에는 하늘이고,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때에는 성이며, 한 몸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음[心]이다. 마음이 발하여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효, 임금을 만났을 때에는 충이라고 한다.

① 갑은 인간이 사물과 달리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지속적인 수양이 없으면 양지(良知)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앎은 반드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격물치지가필요하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천지 사이의 이치[理]는 사물이 생길 때 성(性)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은 마음[心]이고, 성은 마음의 이치이다.
> 을: 성(性)은 하나일 뿐이다. 그 형체를 말할 때에는 하늘이고,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때에는 성이며, 한 몸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음[心]이다. 마음이 발하여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효, 임금을 만났을 때에는 충이라고 한다.

> 맹자는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할 때 측은지심이 생겨도 가서 구해 주지 않는다면 인(仁)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인의예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보 기〉

ㄱ. 인의예지는 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치[理]라 할 수는 없다.
ㄴ.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형성할 수 있다.
ㄷ. 사단(四端)의 실천과 덕의 형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ㄹ. 덕(德)은 반복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 을: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도덕적 선악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① 갑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11.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이치[理]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조작이 없다는 것은 그 본체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쓰임[用]의 차원에서 보면 이치는 그 만나는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 이치가 스스로 이를[自到] 수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 을: 기(氣)가 치우치거나 온전하면 이치도 치우치거나 온전한데, 실제로 치우치거나 온전한 것은 기[氣局]뿐이고 이치는 그 두루 미치는 특성[理通]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 기는 본래 깨끗하지만 그 깨끗함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에 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① 갑은 칠정이 사단과 달리 선악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기질지성이 교정되면 본연지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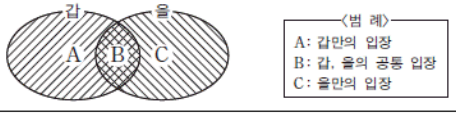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가 결합한 기질지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본성이 마음에서 발현된 결과를 사단이라고 본다.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人]는 밖에 있으며, 덕(德)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멸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을: 길흉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 천과 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가 인의(仁義)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변화하여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조화하게 된다.

(나)


〈보 기〉
ㄱ. A: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
ㄴ. B: 자연적인 본성과 인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ㄷ. B: 예(禮)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ㄹ. C: 인간의 본성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갑은 중세,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신의 존재 증명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으로 신을 알아야 한다.
을: 신앙의 역설이란 한 인간이 개별자로서 보편적인 것 밑에 놓인 다음에, 그 보편적인 것을 통해 보편적인 것 위에 있는 개별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역설은 신 앞에 선 단독자인 인간의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다.

① 갑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와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갑은 현세적 행복이 내세적 행복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을은'죽음에 이르는 병'은 주체적 결정을 회피한 결과라고 본다.
④ 을은 종교적 단계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진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본다.

14.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15.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더라도[頓悟]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갓난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기관[諸根]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근력을 충실하게 키워 내지 못하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보 기〉
ㄱ.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ㄴ. 선종[禪]과 교종[敎]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동일하다.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漸修] 나가야 한다.
ㄹ.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있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갑은 고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자의 운명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 을: 인간이란 자유롭도록 선고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의 무게를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 인간은 존재 방식에 관한 한 세계에 대한 책임자이자 또한 그 자신에 대한 책임자이다.

〈보 기〉

ㄱ. 갑은 이성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을은 불안 극복을 위해 신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 지혜롭다고 주장한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의 실존은 본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①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③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❹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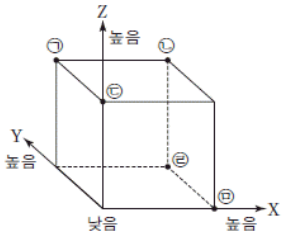
1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은 것을 본질 그 자체와 관련지으려면 무지의 동굴에서 벗어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실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실재를 인식한 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 을: 최초의 두 사람이 지은 원죄가 인간의 본성을 변하게 하였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이 우리가 보며 느끼는 대로 부패하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지상의 국가는 이렇게 천상의 국가에서 멀어졌다.

① 갑은이상국가에서는각계층이자기직분을다해조화를이룬다고본다.
② 을은죄에빠진인간은오직신의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❸ 갑은 을과 달리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여러 덕들 중 최고의 덕을 정의가 아닌 사랑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세계를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구분하여 본다.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자본가가 되는 것은 생산에서의 개인적 지위와 더불어 지배계급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다. 자본은 공동의 산물이며 사회 구성원의 공동 활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을 움직일 수 없다. 자본은 개인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다. 그러므로 자본 소유의 계급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
> (나) 자본가는 자본이 이윤과 함께 회수되기를 기대한다. 그는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그 노동자에게 수입을 안겨 준다. 생산적 노동자는 그 수입으로 비생산적 노동자를 부양한다. 이처럼 자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 X: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도
- Y: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는 정도
- Z: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공유를 중시하는 정도

① (ㄱ)
② (ㄴ)
③ (ㄷ)
❹ (ㄹ)
⑤ (ㅁ)

20.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의서(醫書)에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을 '몸이 불인(不仁)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손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인일 것이다.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천지는 한 몸이고 천지 사이의 만물은 자신의 몸과 같다. 무릇 사람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❶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② 의술(醫術)을 행하여 자기 몸의 건강을 보전할 것을 강조한다.

③ 사회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를 강조한다.

④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고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다.

⑤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